

니카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③

### 집중 아닌 그칠 때 삼매 든다

불교 명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면모가 '마음이 집중된 상태'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얘기한 사유의 두 얼굴에서, 넘어서야 할 부적절한 모습 중 하나를 다스리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감각(感官)으로 인지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늘 내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유의 습관화된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몰입 유형의 명상'이라고 불렀던 사마타(samatha, 止) 명상은 불교 명상의 한 축으로서 흔히 '마음집중'을 추구하는 명상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곧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된 상태'(三昧)가 그 목표로서 이를 계기로 '탐욕

안고는 담배를 연신 피가며 하나의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가히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와 같을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삼매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무엇보다 그들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중하는 모습에서 경외감마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정녕 이러한 모습이 사마타에 가까운 명상의 모습일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면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중의 참모습에 있다. 게임을 할 때의 집중은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과정을 따라 상대를 죽이고 또 죽이는 쾌감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혹 그것이 하나의 블록 맞추



그림 · 나은영

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극물'(三毒)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명상의 의미라는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마타'라는 말의 어원을 고려한다면, 그 의미는 '몰입'이나 '집중'에 앞서 '그침과 멈춤'이 좀 더 일차적인 의미에 가깝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친다는 말일까?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스스로의 시각의식을 작동할 때면 늘 자아중심의 왜곡된 감정이 개입되어,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감정의 끼어들음을 제때에 알아차려 그칠 수 있도록 다스림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 유형의 명상'인 사마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한다. '그침'의 사마타가 '마음집중'의 명상으로 변모하는 지점이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 '몰입 경험'은 게임에서도 얻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 게임에 집중할 때의 모습은 명상에 잠겨 있는 수행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김밥 한 줄을 옆에 두고 생수통을 꺼

기 또는 장벽으로 쌓인 블록을 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전하게 보이는 형태라 할지라도, 그러한 게임에서 발휘되는 집중력이란 마음의 흥분을 동반하는 모습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의 몰입이란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동반되는 빠른 손놀림만큼이나 마음을 극도로 흥분시켜 그 흥분된 마음을 설정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몰고 가는 일차원적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기에서 보이는 집중된 모습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삼매와 비슷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본연으로 보자면 끝없이 마음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과정으로 점철된 과정일 뿐이다. 마음에서 빛어지는 문제점을 '그침 또는 멈춤'을 추구하는 불교 명상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게임하기에서 보이는 마음집중은 쾌감에 내맡겨 마음의 힘을 소진시키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다. 불교 명상의 '마음집중'과는 지향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 그대는 자비보살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정이 많고 나눠주길 좋아하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은 챙기지 않았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던 그 커다란 손은 거칠지만 아름답다. 그 수고가 항상 기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라는 말이 가슴속에 저릿하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

이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품어주는 대모(大母)가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 무릎을 꿇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 바로 백명숙(70·대동심)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이다. 그는 자신의 범명인 대동심(大同心)처럼 아이들을 모두 끌어안는다.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다. 그저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기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따뜻한 엄마의 마음 때문이다.

#### 학생들의 꿈이 나의 꿈

4월 8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백 회장을 만나러 찾아가면 거리는 학원 건물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백 회장이 운영하는 학원 역시 쉬는 시간을 즐기는 학생들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지난 30년 동안 유명학원을 운영하며 매일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그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곧 자신의 꿈'이라는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

"오랜 시간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과 대면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맘껏 기뻐해주고, 반대로 아이들의 꿈이 좌절될 때면 마치 제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 회장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가정경제 형편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7년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다. 이전에도 학원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IMF 이후부터는 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왜 공부를 그만두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학원공부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특히 발전가능성 넘쳤던 수재들도 많아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 전국서 유명학원 3곳을 운영하던 백 회장은 학원 안팎에서 조사를 통해 가정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았다. 그리고 매년 2월부터 대학입시를 볼 때까지 약 10개월간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학 합격 후에는 입학금도 후원했다. 셀 수 없는 금액이었을 터.

"돈으로 환산해 본적은 없어요. 매년 지원하는 학생 수도 달랐고,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백명숙 회장은... 1946년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불교 수행 활동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심을 지키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1992~2000년 금강암 신도회장 및 합창단장, 2001~2004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2001~2003년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6년 대한적십자사 총재 봉사상, 2009년 조계종 포교원 불자대상 원력상과 2014년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그가 이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운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물론 학생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멀리서나마 몇몇 감사인사를 전해 듣는 것이 고작이지만 백 회장은 그저 보람을 느낄 뿐이다.

"제가 도운 학생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커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저와 만날 때가 있었어요. 감사인사를 하며 그때 주신 도움으로 잘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뿌듯하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배움을 아끼지 않은 백 회장은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바로 불교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무렵 파라미타청소년협회(現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알게 됐다.

#### 인성교육 첫 걸음 '이해'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탄생한 1996년 그는

남편인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을 도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이어 2007년 차기 회장에 취임한 그는 단체의 정체성과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파라미타는 불교지만 불교가 아닌 형태로 청소년들의 문화에 접근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정체성과 내실에 신경 쓰지 않으면 본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다름 아닌 부산과 울산에서 유명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봐왔다. 성폭력, 양파, 그리고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빈번히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작 그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서적



명상음반



신용상품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암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절로 문의전화

1644 - 9108



#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요”



2015년 열린 부산파라미타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백명숙 회장(사진 왼쪽)이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화는 곧 그들만의 소품이며 말 없는 대화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기껏해야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끼와 감성 그리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다룰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인성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백 회장은 강조하고 있는 활동은 바로 파라미타 ‘어울림마당’이다. 어울림마당은 부산지역 학생들이 다수 참가한다. 그리고 어울림마당은 학생들이 그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갖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장으로 활용된다. 이들을 위해 마련되는 부스는 스포츠대회 뿐 아니라 다도, 춤 공연, 전통놀이 체험까지 다양하다. 또한 백 회장은 2008년부터 전국대회 규모의 ‘청소년 합창대회’를 열어 화음을 통한 화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체격은 커졌지만 마음씨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탓이겠지요. 합창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화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합창연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소외된 다문화 청소년도 우리 이웃

그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외에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위원,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5일에는 그간의 노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산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표하고 아우르는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취임으로 추대됐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1년 9월 창립됐다. 불교뿐 아니라 현재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을

### 30여 년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 2007년 (사)부산파라미타 회장에 취임 파라미타 ‘어울림 마당’ 활성화 시켜 2월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추대

비롯한 부산지역 34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양성, 연수 및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산 청소년단체 대표기관이다.

백 회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으로 추대되자마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바로 소외된 학생을 찾아 돌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협회 기관에 소속된 아이들은 그나마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이 파라미타나 스카우트 활동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 양지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는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후 부산시청 여성가족부서 국장을 만났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여론을 수렴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백 회장은 처음 만난 청소년들에게 제시할 새로운 콘텐트를 고민한 끝에 ‘전통문화’가 주는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이 나라 이 땅 전국 방방곡곡이 바로 박물관이고 성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열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체험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활동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에 맞춰 백 회장은 첫 날들이를 불국사와 경주 양동 마을로 정했다.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걷고 웃으며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



2008년 구덕운동장에서 실시한 제3차 무차만발공양.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이취임식장. 맨 아래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백명숙 회장.

교문화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닫힌 마음을 도닥겨려 안아주겠다는 것이다.

### 모든 이의 행복 발원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한다. 백 회장이 선택한 문화라는 도구는 궁극적으로 포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신행과 나눔이라는 양 날개다.

백 회장은 매일 새벽이면 능엄주를 펼치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발원한다. 이어 참선 수행으로 아침을 맞는다. 그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과 함께 멀어졌던 불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행복한 마음은 곧 봉사로 이어졌다.

백 회장은 해마다 봉축을 맞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원들과 무차만발공양을 준비한다. 그동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부산 유등산공원에서 3000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해 나섰는데 올해는 부산 연동축제에 맞춰 송상현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인과(因果)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곧 진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위한 씨앗을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문화나 봉사·나눔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有水 千江月) 만리무운 만리천(萬里無雲 萬里天). 천 개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뜨고, 만 리에 구름 없어 만 리가 같은 하늘이네. 법당 주변에 많이 쓰이는 장엄염불 구절이다. 모든 강물에 달이 비치려면 1개뿐인 그 달은 무엇보다 밝아야 하고, 맑은 하늘이 되기 위해선 구름 한 점 없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미래의 대들보들을 품어주는 백명숙 회장이 밝은 달로, 구름 없는 하늘로 거듭나 천진불에게 부처님 광명을 비추는 등대가 되길 응원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 전법일기

## 눈보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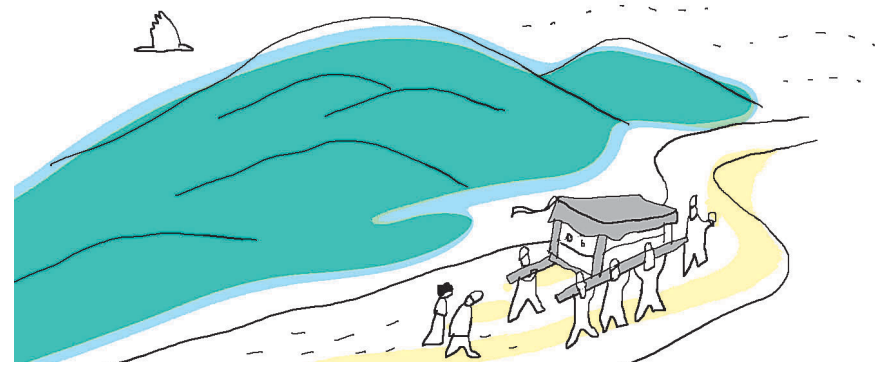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부질없는 것을 좇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나도 혹시 그런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난 아니야!’라고 부정하며 당당하게 외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법회를 할 때마다 종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 대중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이기에 확실하다고 믿고,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닐 것이라

통을 낚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허상을 잘 파악하고 맞춰가며 살았다면, 혹은 내가 부질없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건 아닌지 성찰했다면 조금은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와는 별개로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아니 안 하는 이들이 있다. 누구보다 교육을 잘 받고 외모가 뛰어나도 자신의 짝을 못 찾고 해매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때로는 자식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부



그림·박구원

고 받아들인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거짓투성이 오물들이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지 못할 것은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도 한편으로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허상을 좇다가 끝내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매를 해준 한 남자가 결혼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부랴부랴 두 사람을 불러 상담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한창 만날 때는 그렇게 좋아 죽더니, 갑자기 웬 이혼이란 말입니까?”

“스님, 결혼 전에 몰랐는데 같이 살아 보니 도저히 안 맞아서 못살겠습니다. 결혼 전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취해 허상이 생기고 이에 매몰된 것이 나중에 고

모님들이 하소연을 하러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진실한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조언을 해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부질없어라, 부질없어라.” 본인의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초췌한 얼굴 위에 잠시 미소를 짓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겼다. 어머니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계셨던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한마디로 잘라 부질없다는 말로 생의 정점을 찍었던 것이다.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그날에 무슨 말로 일점을 찍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이 세상의 허상에 매달려 생기는 고통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끝>



해철 스님(육전 대성사 주지)

**범민스님의 산사 음악회 CD 발매**

범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 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컨벤션 센터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 중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업보·남이오느 소리·상념 등이 있다.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 문의 다산불원**  
051-231-6455  
010-9049-0016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남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 (slow)  
⑩ 목탁새 경음악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매 점포/사찰담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볼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찻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한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화합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 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www.sanchonherb.co.kr  
H. 010-3215-3998  
동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용필수품**  
일사형 S형 T보리형  
LED일사형 LED등대형 안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